

324장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1)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 (2) 겻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 (3)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 (4)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 (후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322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5월 15일(화) 기도 담당 : 한상열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승구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24장	다	같	이
기 도	김홍수	집사	
성 경 봉 독 에스더 1:1~5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세상이 지배하는 방식 』	이승구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22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에스더 1:1~5 >

1 이 일은 아하수제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제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2 당시에 아하수제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3 왕위에 있는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 왕이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5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5월 14일(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른아침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외모와 힘을 근간으로 세워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 낮아짐과 섬김, 십자가와 용서로 세워짐을 다시 한 번 묵상합니다. 물질과 힘을 숭상하고, 외모를 자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문안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선두에서 달려가시는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로 새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온 가족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